

스포츠영웅 고(故) 김홍빈 대장, 국립대전현충원에 위패 봉안

장애인으로서 7대륙 최고봉과 세계 최초 히말라야 8000m급 14봉 완등에 성공한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고 김홍빈 대장이 국립대전현충원에 국가사회공헌자로 위패 봉안됐다. <사진>

사단법인 김홍빈과 희망만들기에 따르면 지난 8월 국가보훈처에서 열린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 위원회에서 김 대장의 위패 봉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패는 지난 8일 대전 현충원 현충문에 봉안됐으며 현충원의 규정에 따라 봉안식 등의 행사는 치르지 않았다.

사단법인 김홍빈과 희망만들기와 김 대장의 부인인 방영은 씨는 21일 대전현충원을 방문, 김 대장의 넋을 위로하는 참배의식을 가졌다.

김 대장은 2009년 올해의 장애인상 '대통령상', 2012년 체육훈장 '거상장', 2021년 체육훈장 '정통장'을 받았으며 2021년에는 대한체육회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에 현역된 바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김 대장의 국위 선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 대장의 위패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서의 봉안을 결정했다.



스포츠 영웅으로서의 국립묘역 안장은 2002년 고 손기정(육상-마라톤), 2006년 고 민관식 전 대한체육회장, 2019년 고 서운복(육상-마라톤), 고 김성집(역도), 2020년 고 김일(레슬링), 2021년 고 조오련(수영) 이후 7번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사회공헌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국내의 나눔의료봉사 실천

화순전남대병원(병원장 정용연·사진)이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 공로로 '2022 사회공헌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11개 정부 부처가 후원하는 '사랑나눔 사회공헌대상'은 매년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과 기업의 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화순전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선포했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탄소중립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특히 병원장 직할로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 분과별(환



경, 사회책임, 거버넌스)로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 등을 선정해 실행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개원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치유의 손길(필요한 국내외에서나)을 의료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정용연 화순전남대병원장은 "ESG 경영은 병원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핵심가치"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포용적 성장을 이 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아동센터광주지원단, 아이들의 행복한 꿈터 시화전 개최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은 최근 '아이들의 행복한 꿈터 시화전'을 개최했다. <사진>

시화전은 제 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한마당 축제가 열린 5·18민주광장(구 도청)에서 진행됐다.

지원단은 사회복지사의 날과 더불어 아동친화도시 광주를 알리고 아이들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

췌다.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최강민 단장은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만들어 가는 데 어른들이 옆에서 응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백세로요양원, 신창동에 독거노인 위한 후원품 전달

광주 백세로요양원(대표 정소영·오른쪽)은 최근 지역 독거노인을 위해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주민센터에 100만 원 상당의 참치와 김 등으로 구성된 식품세트 160개를 후원했다. <사진>

이번 후원품은 백세로요양원이 지난 12월 자선 효음약회를 개최해 모금한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해당 후원품은 신창동주민센터를 통해 광산구 독거노인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소영 대표는 "광산구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음악회 문화행사를 진행한 것에 이어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작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동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베네치아 목포점 좋은 이웃가게 현판식 진행



베네치아 목포점은 최근 매장 수익금 일부를 국내아동권리보호사업에 후원해 굿네이버스 좋은이웃가게 현판을 전달 받았다.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 제공>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	KBS1	KBS2	MBC	KBC/SBS
00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5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인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50 비밀의 집(재)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으리차차 내 인생(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안녕 우리말 2022(재)	00 황금가면 스페셜(재)	30 반짝이는 프리채널3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45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5 영상앨범 산(재)	00 12 MBC 뉴스 20 빅마우스(재)	00 SBS 12뉴스 20 만방 네트워크 뉴스 40 오늘의 웹툰(재)
13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5 리슨 업(재)	50 2시 뉴스 외전	
1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국회 대정부 질문 <교육·사회·문화>		30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 분야	00 뉴스브리핑
1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곡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16	00 6시 내고향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생방송 현장 리포트(날) 40 KBC 핫클럽
17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곡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2022 서울 드라마 어워즈	10 보통의 존재	00 아마드 사무루스 2 30 2022 슈퍼모델 선발대회 더 그레이스
18	30 으리차차 내 인생	30 홍길동전 외전	05 분방을 보자	50 닥터 365 55 KBC뉴스와이드
1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50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00 다큐 M	00 공생의 법칙 2
20	00 한식 연대기 50 더 라이브		00 심야교담회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00 연중 플러스	20 문화콘서트 난장	
22	10 예쁜의 전당(재)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사랑의 가족(재)	30 광주MBC 보다 스페셜	00 나이트라인 30 성심! 고향별곡(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들레길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30 시용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5 한자로 통(通)하는 삼국지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8:00 생방송 워킹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머털도사
07:15 하프와 친구들	12:10 EBS 교육진단	19:30 한국의 들레길
07:45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3:00 당신의 활력충전소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00 똥덩어 유치원	13:50 명의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미니특공대 바이레인지스	14: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08:35 한글용사 아이야	15:35 꾸러기 천사들	-파리지엔느처럼 즐기
08:5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재)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30 한국기행
09:05 최고다! 호기심딱지	16:15 페퍼 피그	<함께라서 좋아> 4부 우리 젊은 날(예)
09:20 EBS 친구들 생생	16:25 한글용사 아이야(재)	21:50 이것이 야생이다 3
09:30 어떻게 만들까	16:40 똥덩어 유치원(재)	22:45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2일(음 8월 27일 戊寅)

36년생 시도한다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판세이다. 48년생 수단 활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60년생 요점을 잘 들어 다보고 싶다면 반드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72년생 이것이 저지 따지지 말고 시원스럽게 양보하는 것이 더 낫다. 84년생 지나치다면 역효과를 낳으면서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96년생 원만하게 처리하자. 행운의 숫자 : 01, 53

37년생 예견치 못한 점들이 보인다. 49년생 바탕이 빈약하니 기분에 충실함이 순조로울 것이니라. 61년생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니 미리 알고 대비함이 현명하다. 73년생 발전을 도모하는데 소홀해서는 아니 되겠다. 85년생 과잉 확신은 엄청난 오류를 낳기에 충분하다. 97년생 귀중한 것이니 잘 수습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5, 67

38년생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느니라. 50년생 상대의 조인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62년생 상당한 재산이 들어오거나 영광스러운 일이 보인다. 74년생 모고 있는 것이 백만 나를 뻔한 상황이다. 86년생 작은 현상이나 대범하게 넘길 수 있어야겠다. 98년생 종합적으로 자세한 점검을 해보자. 행운의 숫자 : 30, 96

39년생 뜻밖으로 이중 또는 삼중의 행운이 따르리라. 51년생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으니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 63년생 생왕의 기운으로 표리가 충만해지는 기쁨이 있다. 75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87년생 꿈꾸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99년생 일한다면 오히려 손실만 나겠다. 행운의 숫자 : 47, 71

40년생 열정과 집착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52년생 작고 생기기 않도록 방법이 신경써야 한다. 64년생 뜻밖의 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매달릴 수다. 76년생 어릴때 행하려거든 아니함만 못하느니라. 88년생 마음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00년생 마음만으로는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77

41년생 선수를 정하지 않으면 실속 없이 분주해질 수 있다. 53년생 불쾌와 기쁨이 더불어서 올 수이니 반길만치이다. 65년생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다. 77년생 차분하면서도 매우 신중하게 실행하자. 89년생 흥이 변해 갈해지니 뜻대로 되리라. 01년생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7, 97

42년생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운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54년생 성사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66년생 가변적인 정황에 맞춰서 진행하자. 78년생 지금 진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다. 90년생 북 속이 조그만 화의 불씨가 숨어 있도다. 02년생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속 편하리라. 행운의 숫자 : 05, 84

43년생 사소한 일에서부터 대사까지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55년생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67년생 다른 곳까지 옮겨가면서 더 확대되는 기세이다. 79년생 길조가 비추나 기운이 자주 바뀌는 흐름이다. 91년생 고정 관념에서 벗어났을 때 새로운 불을 볼 수 있다. 03년생 명분에 사로잡힌다면 손실을 낳는다. 행운의 숫자 : 46, 58

44년생 이왕이면 다중적인 복합 기능이 경제적이니라. 56년생 무리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68년생 불균형이 보이지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잡자. 80년생 험준 고비가 남아 있으니 각오해야 한다. 92년생 실리보다 중요한 것은 조화로운 관계임을 알아. 04년생 거품을 제거하고 실속을 행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26, 92

33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달려다 빠지지 않도록 하라. 45년생 앞날이 환히 열리는 계기가 조성된다. 57년생 사정을 잘 헤아려서 처리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69년생 예상치 못한 기쁨이 있을 수 있으니 각오하고 있어 아 놀라지 않을 것이다. 81년생 보이지 않는 작용력이 있다. 93년생 많은 문제점들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1, 90

34년생 비웃음 국량으로 환원될 것이다. 46년생 한변만으로는 불완전하므로 여러 번 신경써야 하는 수고로움이 보인다. 58년생 관계가 개선되어야 진전을 보일 것이다. 70년생 막연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82년생 실리보다 실속이 없으니 빨리 정산할수록 이익이다. 94년생 동기를 부여하는 기반이 조성되리라. 행운의 숫자 : 19, 73

35년생 순기능이 극대화되면서 여러 가지 발전된 양상을 띠게 된다. 47년생 취득하느나 상실하고 마느나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59년생 간헐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 71년생 기준과 통념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83년생 일부만 본다면 착각할 수다. 95년생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00, 80